

“리더의 덕목은 목표에 대한 헌신성과 명확한 비전”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아홉번째 강의 이 주 현 미술평론가

알렉산드로스·잔다르크 등 역사화 속 리더 이야기 소개 “그림 감상에는 정답없어 ... 본대로 느낀대로 자신감 갖길”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을 흐리게 뜨고 보는데 진실일 수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 눈이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한계를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미술이라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우리 눈의 한계를 이용한 작업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착각을 잘하고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의 시각이 탄생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예술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마지막 강연 시간. 신문사 미술담당 기자를 거쳐 가나아트 편집장, 아트스페이스 서울 관장, 서울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한 미술평론가 이주현(52)씨가 강단에 섰다. 명화를 쉽게 풀이해주는 ‘아트 스토리

텔러’인 그는 명성만큼이나 친절하면서도 흥미롭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림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내었다. 이날 강의에서도 그는 ‘캔버스 위의 리더십’을 주제로 다양한 서양 미술작품에 담긴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갖추고 있는 덕목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진행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서양에는 리더를 그린 그림이 많다고 전해준 이씨는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주는 역사화(歷史畵)를 보여주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역사화는 역사적인 사건과 영웅의 그림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림으로만 그려서는 안되죠. 보고 깨우치는 게 있어야 역사화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다채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요. 역사화 속의 리더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는 탁월한 포용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

다.” 설명과 함께 보여준 그림은 베로네제가 그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는 다리우스 가족’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이누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푼 유명한 일화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다. 당대 많은 화가들이 알렉산드로스의 포용력과 관련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헌신성을 주제로 루오가 그린 ‘우리들의 잔’. 잔다르크가 흰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그려진 작품이다. 시골 소녀 잔다르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헌신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군대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는 바로 헌신성입니다. 리더십은 지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강한 헌신성에



달려있다는 의미지요. 이외에도 서양 미술작품들에는 소명 의식과 봉사심, 배려심, 도덕성, 명확한 비전, 집념 등 리더의 자질과 능력을 다룬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씨는 이날 강의에서 미술작품을 보는 눈이 아닌 리더십에 대한 강연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의 시각은 맞고 틀림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옳은 것입니다. 남과 다르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미술관을 찾아가 그림을 감상할 때 작품을 설명해주는 이가 없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알고 보면 좋겠

지만, 아는 것보다 보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눈과 마음으로 그림을 감상해 보세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수 강원래-김송 부부 결혼 13년만에 아이 얻어

가수 강원래-김송 부부가 결혼 13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다. 강원래 소속사는 11일 “아내 김송 씨가 오늘 오전 8시30분 강남 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몸무게 3.95kg의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강인호 대표는 “출산은 강원래와 김송의 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아이를 본 가족 모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혼인 신고를 한 뒤 2003년 결혼식을 올린 강원래-김송 부부는 시험관 아기 기술을 꾸준히 시행한 뒤 ‘7전8기’ 만에 임신에 성공해 화제가 됐다.

강원래는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이런 날이 내게와 너무 기쁘다. 정말 잘 키워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송은 10일 오후 3시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유증운 전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속사는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수술을 받았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서양 종교 아우른 순례기

정동채 전 장관 ‘봉정암에서 바티칸까지’ 발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 동서양의 종교를 아우른 순례기 ‘봉정암에서 바티칸까지’를 발간했다. 국회의원 3선 출신으로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이사장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을 거치는 등 정치 일선에서 분주하게 산 그는 순례길에서 깊게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떠난 성지 순례를 비롯해 사할 순례, 선 수행 체험, 바티칸에서 일어난 교황, 김수환 추기경과 범정 스님의 일화 등을 책에 실었다. 절해고도에 자리 잡은 수비아코 수도원에서 얻은 단상, 알함브라 궁전과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짚어본 이슬람, 탁났한 스님·서운 스님·대행 스님 등이 전하는 메시지도 소개한다. 저자는 가톨릭 신자지만 여러 종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대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부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믿고 부처님은 공경한다”고 답한다는 그는 불교의 공(空)과 무(無)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에서 찾기도 한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는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妙有)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진공묘유(真空妙有)라고 한다”며 “이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앙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순례기를 통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화두도 던진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정치에서 과연 무아(無我)와 무집착(無執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짜이 통지가 되고 통지가 적이 되며, 내가 남을 떠나고 남이 나를 떠나고, 떠났다가 다시 만나 도움을 받고, 법의 심판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인의 자성(自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강학원 제2대 이사장 김상우 학원장 동상 제막식 내일 서강고서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김상우 제2대 이사장 겸 학원장 동상 제막식이 열린다. 서강학원(이사장 김정수 서영대 총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강고 교정에서 총동문회, 서영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강학원 창학 37주년 기념식 및 서정 김상우 학원장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지난해 1월 별세한 김 학원장은 학교법인 서강학원 설립자인 고 김경식 박사의

부인으로 1978년 김 박사의 갑작스런 타계로 서강학원 2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서강중·고와 서영대를 서강학원을 이끌어왔다. 또 수도권에 서정대학과 서영대 파주캠퍼스까지 문을 여는 등 평생을 교육사업에 힘을 쏟아온 교육

가다. 이번 동상 건립은 김 학원장과 남다른 인연을 서강고 졸업생들과 총동문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돼 의미가 남다르다. 김 학원장의 동상은 서강고 옆 교정에 자리한 남편 김경식 박사의 옆자리에 설치된다. 부부가 평생 오롯이 지켜온 교정에 나란히 자리하게 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폭력과 기억의 싸움’

광주트라우마센터, 서경식 교수 초청 강좌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는 12일 저녁 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서경식 도쿄게이지이대학 교수를 초청해 치유의 인문학 네번째 강좌를 개최한다. 서 교수는 ‘폭력과 기억의 싸움’을 주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돌아보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이를 기억하는 싸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조국(12월9일-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 시장경제)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유의 인문학 강좌는 시민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 광주트라우마센터 062-600-1974.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2대 원장에 박두규씨

전남도는 재단법인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의 제2대 원장에 박두규(60)씨를 임명했다. 신임 박두규 원장은 광양고 등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 13년여간 재직하고 제1대 전남도교육위원을 역임했다. 광양YMCA, 순천YMCA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신임 박두규 원장은 10일 “청소년 교육과 지원에 반평생을 바친 경험을 살려 청소년에게 건강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김동호(전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장)·전영림씨 장남 학군군 김병수·이정숙씨 오녀 정립양=15일(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필동2가 한국의 집 02-2266-9101.
- ▲차기운(전 관성경찰서)·김옥덕(유니베라 남양알로에 대표)씨 장남 병훈군 김중환(유통업)·신금순씨 장녀 지영양=14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지하철 농성역 앞)
- ▲김태중·정희순씨 차남 만석군 공영욱·김옥숙씨 장녀 민영양=14일(토) 낮 12시 50분 상무리조트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 ▲정경복(주) 새천 대표이사)군 남미(그린테라피 피부샵 대표)양=14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 웨딩홀 2층 열두채홀.
- ▲김병욱·이석순씨 장남 효준군 김창호·조익순씨 차녀 미리양=15일(일) 낮 12시 40분 아이리스웨딩홀 2층 헤라홀.
- ▲이동연·윤현옥씨 장남 상진군 조광흠(전 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장숙희씨 막내 지희양=15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롯데마트 상무점 맞은편)

동창회

▲재광 순천 매산고 정기모임(회장 장진훈)=17일(화) 오후 7시 광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옆 일천서.

종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장원구)자문회의=12일(목) 오후 5시 진주 강씨 회관 3층 회의실 010-2378-0070

알림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

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모집

▲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건,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인건,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가장 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부음

- ▲김동현씨 별세 준형·민정·민우씨 부친상=발인 1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정미희씨 별세 이도현·나현씨 모친상=발인 12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101호 故황환자 남(여/89세) 子/子婦 : 양승현, 양승민/김희영 女/婿 : 양희정/박관호 •호 실 : 101호 •장 지 : 영락공원 •발 인 : 6월 13일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고정순 남(여/85세) 子/子婦 : 양정환/이동아, 양현민/전지희 女/婿 : 양호선/유우성 •호 실 : 102호 •장 지 : 영락공원 •발 인 : 6월 12일 •연락처 : 227-4386
401호 故서귀 남(여/89세) 子/子婦 : 박길수/김연순, 박길민/박순정/장명란/박인현/이영민 女/婿 : 박미순/박종일 孫 : 박주일, 박주영, 박준호, 박주현, 박민진 •호 실 : 401호 •장 지 : 영락공원 •발 인 : 6월 12일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조효진 남(남/65세) 子 : 조보경 女/婿 : 조화진/박선복 未成人 : 김경순 •호 실 : 402호 •장 지 : 5.18민주묘역 •발 인 : 6월 12일 •연락처 :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